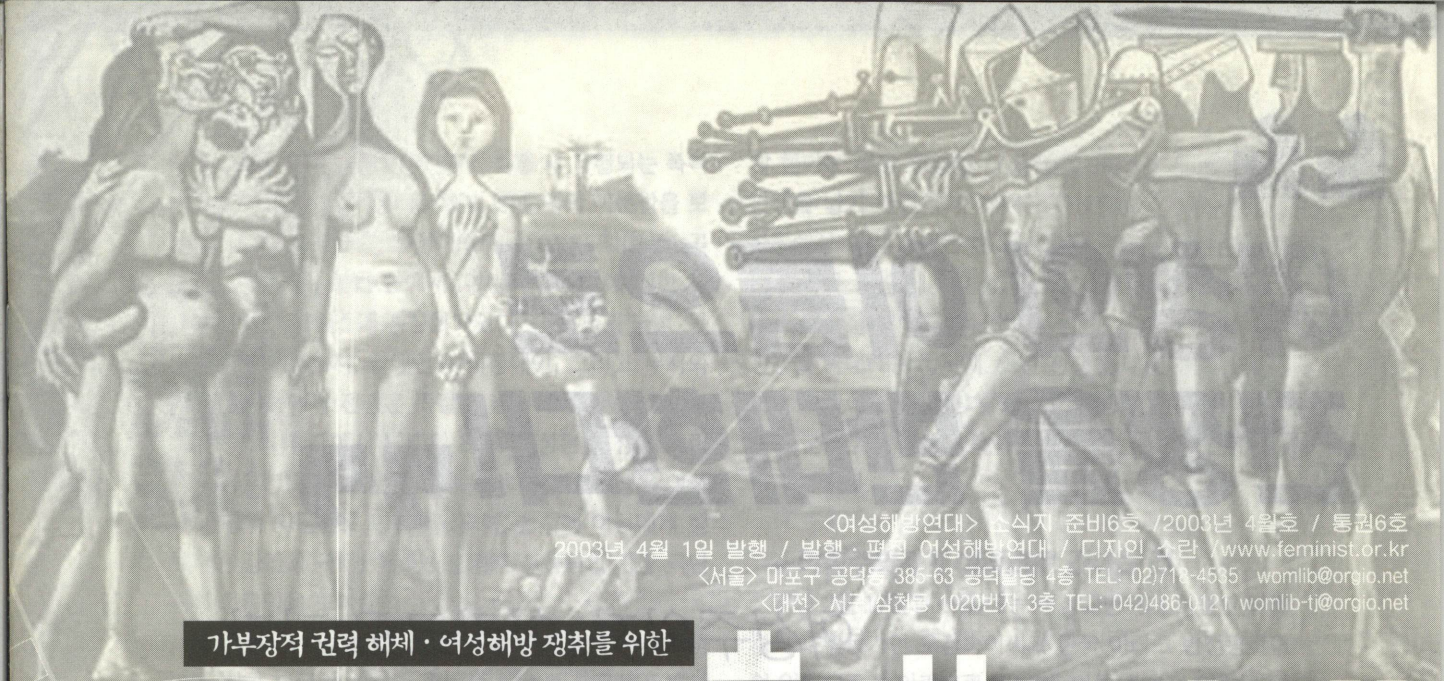




<여성해방연대> 소식지 준비6호 / 2003년 4월호 / 통권6호
2003년 4월 1일 발행 / 발행·편집 여성해방연대 / 디자인 소란 / www.feminist.or.kr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63 공덕빌딩 4층 TEL: 02)718-4535 womlib@orgio.net
<대전> 서구 삼천로 1020번지 3층 TEL: 042)486-0121 womlib-tj@orgio.net

가부장적 권력 해체 · 여성해방 쟁취를 위한

여성해방연대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 1 소식지를 내며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 3 지상강좌 공장제,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5 기획 용모단정을 내면화한 노동시장
- 6 세상돌보기
- 7 우리시대이여자 거북이 시스템즈
- 9 즐거운문화방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 10 여성사키워드 히스테리
- 11 요즘 어때? 안티아라키! '소운'
- 12 특집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활동일지
- 13 특집 전국상근자 워크샵을 다녀와서
- 15 활동소식

“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LET
IRAQ
LIVE

여성주의자, 이라크로 가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을 시작 했다.

지난 2월 15일은 전세계의 시민들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반대를 선포하는 날이었다. 전세계 1000만 명의 시민들이 반전평화의 주장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그 규모는 지난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큰 것이었다고 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 국가들인 프랑스, 러시아, 독일이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공습 결정을 반대였고, 미국을 지지하던 영국 정부도 전세계적인 반전 시위 이후 주춤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반전·평화주의자들은 "석유와 피를 맛바꿀 수는 없다"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다. 그리고 12년 전 걸프전 시기부터 반전 운동을 해온 이라크 평화팀(Iraq Peace Team, IPT)은 현재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직접 들어가서 온몸으로 전쟁을 막고 있다. 그들은 부시와 후세인에 의한 이번 전쟁이 이라크 민중의 이해와는 무관한 것임을,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여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시는 3월 20일 전쟁을 감행하였다. 역사상 모든 전쟁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 또한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수준을 넘어서서, 강대국과 폭력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2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여성과 소 수자들에 대한 전쟁이다.

지난 걸프 전 이후 미국은 이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실행해 왔다. 그동안 이라크에 대해 실시해왔던 미국의 경제 제재는 의약품을 비롯한 기본적인 공산품과 식료품에 대한 제재로 이라크의 빈곤층과 여성, 어린이,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매일매일을 죽음과 질병 속에서 보내고 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질병으로도 죽음에 이르고 있으며, 식품의 부족으로 성인들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조차도 우유가 없어서 배고픔에 시달린다고 한다. 전쟁의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대부분의 이라크인들은 극심한 빈곤과 질병으로 피난을 떠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34년간 지속되어온 후세인의 독재 정치는 이라크인들에게 어떤 자유도 허락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이라크 민중들은 역사상 어떤 국가의 민중들보다도 억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3년 1월 7일 UN 보고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라크의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최소 50만 명의 사망, 34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 가난, 질병은 무엇보다 여성과 소수자들의 희생을 낳을 것이다. 전쟁은 국가 간의 무력 분쟁일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는 지역의 여성과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의 대 아프